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생태적 접근

김대희\* · 이채식\*\*

\* 순천대학교 교수 · \*\* 서울대학교 대학원

## Community Ecological Approach for Sustainable Society

Dae Hee Kim\* · Chae Shik Lee\*\*

\* Professo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This paper discussed community ecological approach for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 and Sustainable Society(SS). Community ecology is composed of nature, environment and diverse species and is dynamic and sustainable system by interaction among those components.

It is required long-term, integrating and eco-centric stances to achieve ESSD and SS such as eco-city and eco-village movements. This is integrated and complicated perspective beyond traditional dichotomy between human and environment.

Community ecological perspective directs people toward ecological society system which creates and maintains adaptable life style under ecological situation in community. Building up eco-parks, eco-cities, eco-villages are crucial movements for promoting human's environmental living standards. These sustainable community movements require people to change their values and life styles suitable for their SS. It is required integrated and balanced perspective and participating endeavor of residents to maintain SS.

**Key Words :** Community Ecological Approach,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Sustainable Society(SS)

## I. 서 론

총체적인 환경오염과 훼손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 곁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생명체들은 현대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수 많은 생명체들이 생존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 또한 도시화된 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대병들은 우리 인간의 몸 또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환경사랑, 생명사랑이라는 구호가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변화 - 즉,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생태원리를 존중하고, 복원시켜 나가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및 사회(Sustainable Society, SS)에서 지향하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나 이와 관련된 공동체적 의식과 생활양식 등은 지속적인 자연순환체계들 - 즉,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과 퇴비화, 농촌의 자연식 변소와 자연정화시스템의 활용 등 - 을 최대한 복원, 보전시켜 나가야

유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유기농업으로 토양 속 생태계가 회복되고, 습지 등의 자연정화 체계가 복원되면 토양과 퇴비, 습지 등을 이용하여 유충과 번데기 시절을 거치는 많은 곤충들과 작은 생명체들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 이들과 관계된 동식물들이 늘어나게 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기에, 우리의 생활양식을 자연의 순환체계에 맞추는 노력이 곧 자연사랑, 생명사랑의 길임을 깨우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경문화는 자연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사회였기에 과거 수 천년 동안 커다란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로서 제주의 돼지 번소는 약간의 비위생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인변(人便) 등을 돼지가 이용하고, 농업 부산물인 보리짚 등이 돼지의 대, 소변과 섞여 좋은 발효 퇴비가 만들어져 다시 농사에 재활용되는 자연 친화적인 순환체계의 연결고리였다. 즉, 과거 우리나라의 번소나 소, 돼지, 오리, 개들을 길렀던 많은 부분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공산품들이 우리 생활에 정착되면서 이러한 순환체제 상의 연결고리들이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다. 번소는 미관상 보기 싫고, 비위생적이라는 관점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변화됨으로써 퇴비의 주원료로 활용되던 대소변이 이제는 환경오염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농사일을 돕던 소가 경운기 등으로 대체되어, 현재는 대량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호르몬제, 약품 등이 투여됨으로써 가축배설물이 퇴비로 활용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가축 집단 사육장은 현재 농촌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소가 되었으며, 조류독감 등 여러가지 질병과 바이러스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과거의 생활양식에서는 물질 순환의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 이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으로 그 역할이 변화된 것이다. 중화학 공업의 발달,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급속한

이주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맞물려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지력(地力)이 약화되어 작물에 병해충이 만연해지고,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마저 믿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비누보다는 세제들이 더 많이 사용됨으로써 하천마다 환경호르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돼지나 개의 남은 음식물 처리기능이 약화되어 남은 음식물은 현재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즉, 환경문제의 많은 부분들은 순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생활양식이 변화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만들고 → 이용하고 → 버리는 양식에서 → 다시 재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들과 이와 관련된 생활양식에 있어서 지속성, 안전성, 형평성, 재순환 가능성 등의 생태원리를 고려한 연결고리가 우리의 생활양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이러한 생태원리에 기반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경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관점인 지역사회 생태적 시각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회(생태도시, 생태마을)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 II.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생태적 접근

### 1. 지역사회 생태의 의미와 통합적 시각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흔히 일반적인 환경오염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환경문제로 이어지는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고, 현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같은 생활권으로 의식하고, 공동체적 동질감을 느끼는 마을, 행정구역 등의 정주공간을 의미하는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인간중심적인(으로 사용되어온) 용어이다.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종합적 시각에서 지역사회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역사회 + 생태(이는 원래 지역사회 = 지역사회 생태태로서 같은 의미임. 환경분야를 포함한다는 관점이 강조된 것)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분야를 포함한 통합적인 시각이 강조된 것이다.

지역사회 생태는 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및 지역사회내의 생물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나누어지지 않는 것으로는 위의 구성요소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엮여지는 지역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라는 통합적 측면(생활양식, 문화, 생태적 관계 등)이 존재한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상화되는 통합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대 환경문제가 인간중심적인 가치관과 사고의식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여건과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생태라는 용어가 지역사회의 전체적 측면을 이해하는 틀로서 보다 적합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구분하는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와 농촌이며, 이는 주로 인구 수로 구분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 있어서 인구수보다 더 특징적인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환경적 요소와 인공환경적 요소간의 비중이다. 도시는 인공적 및 현대 기술적 요소가 그 지역 사람들의 생산, 소비, 문화 등의 제반 활동에 많이 관여되어 있어서, 이러한 요소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비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생명체의 한 종으로서의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본다면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이 지역사회의 자연생태적 여건이 양호하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최근 30여 년간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경우 도시는 과잉 도시화, 농촌은 지역사회의 해체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양쪽 다 인간의 정주공간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도시의 경우 인구집중,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녹지공간의 부족과 과밀화로 인한 문제, 자동차 문제, 주거문제, 대기오염문제, 쓰레기문제, 지나친 경쟁과 도시화에 따른 갖가지 스트레스와 병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녹지공간의 부족과 바쁜 일과로 인하여 도시생활에서는 자연과의 접촉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매일 같이 비슷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이웃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게 되었다.

농촌의 경우는 농업의 경제성 약화와 교육 및 문화적 기반과 지원의 약화 등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었다. 결과적으로 농촌마을의 과소화 현상이 심화되어 이제는 몇 남지 않은 고령인구만 남아있는 마을들이 많아,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해체 현상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즉, 도시의 경우는 과밀에 따른 문제, 농촌의 경우는 과소에 따른 문제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불균형 발달의 문제가 심화되어온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균형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따로 따로 접근하는 것보다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 2. 환경문제의 해결 방향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시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향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

ment, SD)의 개념에서 '지속가능한'이란 말은 물리적인 환경친화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이창우, 2001).

근대 서구학문의 분화 및 발달과정에서 인간/환경, 사회/자연(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체/객체, 마음/신체, 이성/경험 등)은 인식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즉 환경은 주체인 인간의 의식과 활동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이며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한 대상이 되는 객체로 인식되었다. 서구 역사의 발달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기초한 물질적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식은 자연환경을 단지 인간사회에 외적으로 존재하면서 인간

사회를 위해 이용되고 지배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오늘날 인류가 처한 환경 위기는 바로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자연환경의 황폐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도시연구소, 2000).

따라서 현대의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의 틀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경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인간중심적인 입장과 생태중심적인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2가지 입장의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차 이 점
생태중심적 입장 (eco-centric stances, deep green approac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생태)의 자족성, 안정성, 형평성, 참여성, 미래성 등의 지속가능한 이상향 추구</li> <li>- 인간과 인간 및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공동체 운동</li> <li>- GEN(The Global Ecovillage Network) 등으로 세계적 네트워크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도시(eco-city), 자족도시(self-reliant city), 생태마을(ecovillage), 생태이웃(eco-neighbourhood), 생태지역주의(bioregionalism), 영구·자족적 마을(permaculture) 운동 등</li> </ul> </li> </ul>	근본적 접근 : 지역사회 내에 서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지역사회의 생태적 여건에 맞게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사회체제 지향
인간중심적 입장 (anthropocentric stances, light green approac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적·물리적·제도적·재정적·정치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li> <li>- 환경오염물질의 저감과 리사이클의 촉진, 녹지의 확대, 야생동물의 보호, 규제책과 인센티브를 병행한 에너지 절약 촉진, 자동차 교통의존도 저감, 도시형태의 전환(고밀도 토지이용에 의한 도시개발 촉진, 교통교차점의 도시 정비 등) 등 압축도시(compact city)와 토지 이용의 복합적 활용</li> <li>-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발정책을 최소한 수정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도시, 생태공원, 생태하천, 생태관광, 생태 주택 및 공간 체계 등</li> </ul> </li> </ul>	개량적 접근 : 현재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유지, 개선시키기 위하여 환경오염 수준을 줄여 나가며, 환경혜택을 늘리기 위한 기술의 활용과 사회체제를 지향

출처 : 김선희, 2001: 28; 김귀순, 2003: 19-47 등의 관련 내용을 활용하여 보완함.

그러나 삶의 질을 바람직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향은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환경여건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며, 생태중심적인 입장 또한 인간을 생태계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속적인 삶의 유형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지향점으로 귀결된다.

즉,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이 지역사회의 제반 여건에서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과연(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생태적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인가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생태중심적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지역사회의 생태적 여건에 맞게 형성, 유지시킬 수 있는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며, 인간중심적 입장에서는 현재의 생활양식과 수준을 유지, 개선시키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수준을 줄여나가는 한편, 환경혜택을 늘리기 위한 기술의 활용과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개량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이에 따라 생태중심적 입장에서는 생태의존적인 생활양식의 구현을 추구하며, 인간중심적 입장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이 잘 적용되는 생활양식의 구현을 추구하게 되는 접근방법 상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 III.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

#### 1.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의미와 지향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는 개념은 흔히 줄여서 ‘지속가능한 발전’(SD)으로 사용되며, 이는 경제적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의 수용능력 내

에서 인간의 삶을 영위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예를 든다면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995년 수준으로 낮추자는 국제협약의 지향점에서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growth)을 지속하는 의미, 즉 발전과 성장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 및 오용하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회피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태공동체(생태도시 및 마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및 개인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시키는데는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SS)<sup>2)</sup>라는 개념이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의미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되는 생태계 내에서 조화롭게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기능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의 지향점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두 개념간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는 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와 사전 예방, 환경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한다. 이에 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지속성의 전제조건으로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배와 참여의 정의 문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들로 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환경의 질은 생활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둘째, 환경문제는 국지적이거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범세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셋째,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경을 물려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

- 1) 뒤에 별도로 논의된 것 참고바람.
- 2)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Milbrath, L. W., 2001, 지속가능한 사회, 서울: 인간사랑을 참고 바람.

<표 2>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의 지향점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체계적 관리</li> <li>•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통합(경제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함)</li> <li>•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인 산업 및 생산체제 구축</li> <li>• 생활 수준의 유지와 발전</li> <li>• 환경친화적 생산체제와 소비생활의 정착</li> <li>• 세대내(빈부간, 계층간, 국가간) 및 세대간 형평성의 추구</li> <li>• 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사고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경제활동 양식으로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원순환형 사회</li> <li>• 환경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민주주의 사회</li> <li>•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삶의 질적 변화 추구</li> <li>• 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적정기술을 활용하는 사회</li> <li>•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 환경정의가 실현되는 사회</li> <li>• 교육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전환</li> </ul>

출처 : 서경숙, 2004: 19의 내용을 보완함.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성장의 제한과 균형 분배, 경성기술을 적정 및 연성 기술로 대체, 그리고 자연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가치관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는 가치관으로의 변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양중희, 1995).

Milbrath(2001)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패러다임(DSP)이 새로운 환경적 패러다임(NEP)으로, 또한 Catton과 Dunlap(1979)은 기존의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간에외주의 패러다임(HEP)이 인간과 생태계의 상호의존 및 조화를 강조하는 신생태학적 패러다임(NEP)으로 전환되어야만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주장한다(양중희, 1995).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 사회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 변동은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촉진하던 사회제도와 가치관의 변동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던 물질적 풍요를 생활의 질로 간주하는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장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성장을 지향하는 기존의 생산체제(성장을 위해서는 계

속해서 생산 - 소비 단위를 증가시켜야만 하는 소위 생산의 디달방아),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체제의 근본이 변동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 희생을 요구하며, 분배정의의 문제를 제기한다. 성장의 제한, 물질적 풍요의 포기, 분배정의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런 문제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며 이것은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사회의 생산체제, 기술체제, 그리고 구성원들의 생활방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에 있어서의 변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양중희, 1995).

2.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습

지속가능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지속가능한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umacher(1973)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적정기술과 연성기술을 제시한다. 적정기술이란 사람들이 자급자족 및 자연과의 조

화를 추구함에 따라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그리고 자연의 방식에 잘 조화된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성기술은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환경에 우호적이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정기술을 의미하는데, 탈중앙집권적이며, 단순하고, 비전문화되어 있으며, 자본이 적게 들고, 노동집약적인 기술로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생활의 질의 차원에서는 비소의적이고, 인간적이며, 이해가능하고, 문화적으로도 양립 가능하다고 한다(양중희, 1995).

Milbrath(2001)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가치의 전환이 필수적인데 이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본다. 사회적 학습은 서로 배우고 자연으로부터 배운다는 '스스로 교육하는 공동체'라는 착상에서 나온 것으로, 그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통합적이고 확률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과학과 기술에 비판적이며, 이론과 실천을 조합하고,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식적으로 예상하며, 미래의 영향을 분석하는 실천을 제도화하고, 개방성과 시민의 참여를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욱(1998)은 지속가능성에 바탕한 생태적 효과성(eco-effectiveness)이라는 접근방법을 생태적 효율성에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생태적 효율성의 추구는 기존의 행태와 믿음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원이 완전히 소진되고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날을 늦추자는 것 뿐이다. 즉,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기존의 경제활동양식에 의존하여 생태적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오늘날의 환경정책이나 환경운동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효율성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이란 자원의 소진과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낳았던 바로 그 경제활동양식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생태적 효율성의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가 재활용인데, 그는 재활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현재 재활용의 문제는 재활용의 회수에 따라 재활용되는 자원의 질이 점차 떨어져 결국 폐기되고

하는 하향-재활용이라는 것이다. 하향-재활용은 자원의 소진과 환경파괴의 속도를 늦출 뿐 멈추지는 못한다. 자원의 소진과 환경의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되는 폐기된 자원이나 재생 제품의 질이 개선되거나 또는 최소한 처음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활동양식이 자원-재생적(resource-regenerative)이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바로 생태적 효과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경제활동양식이 자원-재생적이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요소가 유기적 재생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생산에 유기적 영양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 분해될 수 없는 요소는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생태계로부터 분리되어 폐쇄적인 기술적 재생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생산에 기술적 영양소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영양소의 재생과정과 유기적 영양소의 재생과정이 서로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생과정을 통하여 안전하게 재생될 수 없는 제품은 소비하지 말아야 하고 생산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 효과성의 접근방법은 생태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감축, 재생, 재활용" 이상의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생태적 효과성에 바탕한 경제활동양식의 이점은 첫째, 가치있는 희소한 자원이 재활용되며, 둘째, 위험물질이나 독극물이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또 배출되지도 않아 환경적, 윤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장욱, 1998).

이상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모습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도 우리 인간의 복지에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것, 예컨대 자유·평등·정의·사회안정·건강·교육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이념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생태환경의 지속 가능성 외에도 비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사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협의적인 참여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사회로서 환경교육 등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에 기초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지역생태계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체제이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사회이다.<sup>3)</sup> 농업은 토양과 물을 보호하고, 사람과 농촌의 건강을 촉진하여야 하며, 그것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존력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인간적이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기술과 생산방법은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 수준에 적합하고 통제될 수 있으며, 생태계에 유해한 효과를 회피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지역 생산단위의 발전을 조장하여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사회는 경제활동 즉, 생활자체가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서 생태질의 유지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 IV.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지역사회 생태의 지속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

리우환경회의(1992) 이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방정부에서 채택되

3)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회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요시다 타로, 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서울: 들녘.을 참조하기 바람.

었으며(2002년 기준 113개국 6,415개 지방정부, 우리나라는 2003년 기준 186개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환경운동과 프로그램들이 계획, 실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의 해결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지방의제 21과 지표 개발 활동, 생태하천 및 공원 조성 운동, 생태공동체(생태도시, 생태자치구, 생태마을) 조성 운동 등}은 현대의 환경문제 해결 방향인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의 주요 형태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 중 지역사회생태 여건을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으로서 생태공원, 생태도시, 생태마을 조성운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1. 생태공원의 조성 노력

도시지역의 경우 오염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자연과의 접촉기회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도시지역사회 내부 또는 인근에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하는 생태공원들이 조성되고 있다.

생태공원이란 야생생물의 서식처를 보전하고 여가와 생태학습을 통한 생태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조성된 공원이다. 도시의 생태공원 조성은 인공환경과 공해로 뒤덮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자연을 직접 접하고, 자연과의 친화성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생태공원의 조성에서 중요한 점은 종의 다양성, 생태적 건전성, 지속가능성 등 생태계의 질서에 의해 스스로 유지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생태공원 조성계획에서는 파괴·오염된 자연의 복원과 자연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광과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의 생태공원 계획은 전체적으로 종합적 측면에서 생태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생태공원 구역 내외에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최병두, 2003).

즉, 생태공원의 조성은 기본적으로 도시화된 생활양식을 보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시책으로 정립되어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생태도시(지속가능한 도시) 운동

도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될 수 있지만 현재 많은 인구와 산업이 좁은 지역에 집적된 곳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소모와 폐기물 배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산업화 과정과 맞물려 촉진된 현대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개발된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소모되고 오염물질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녹지공간은 점차 감소하고 그 곳에 살았던 동식물도 사라지게 되었다. 인간 역시 토지나 물과 같이

생활에 필수적인 자원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거나, 혼잡한 교통과 오염되고 밀집된 환경으로부터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환경문제는 단순히 환경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회경제체제의 문제 또는 이러한 도시화 과정을 추동한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관련되어 있다(최병두, 2003).

김선희(2001)는 우리나라 도시의 지속불가능한 도시모습과 주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전략을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많은 논의들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한 미래의 도시로서 생태도시라는 용어 외에도 녹색도시, 에코시티, 환경친화적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등의 용어로 표현되면서 도시공간 속에서 인간과 환경의 공생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최병두, 2003).

<표 3> 지속불가능한 도시의 주요 문제점과 해결 전략

도시 모습	주요 문제점	해결 전략
아름답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시가지, 신도시 개발의 고밀화</li> <li>• 공원, 녹지공간 부족 및 자연생태계 훼손</li> <li>• 보행공간의 부족과 보행자 공간체계 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 내 공원·녹지 확보</li> <li>• 보행자 공간체계 조성</li> </ul>
개성없는 비문화적인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일적인 도시문화</li> <li>• 지방의 서울모방, 무분별한 외국 모방</li> <li>• 도시문화공간 및 시설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li> </ul>
건강하지 못한 오염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 수질오염 및 쓰레기 공해 심화</li> <li>• 각종 처리시설의 부족과 입지선정 부진</li> <li>• 자원 및 에너지 과다소비형 도시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내 자연생태계의 보전</li> <li>•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li> </ul>
안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방재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li> <li>• 과다 교통수요 유발형 도시구조 및 도시개발</li> <li>• 노약자, 장애자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 부족</li> <li>• 도시의 정보전달체계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해의 관리</li> <li>• 교통수요 절감적 도시개발</li> <li>• 이동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개선</li> <li>• 도시 정보화체계 구축</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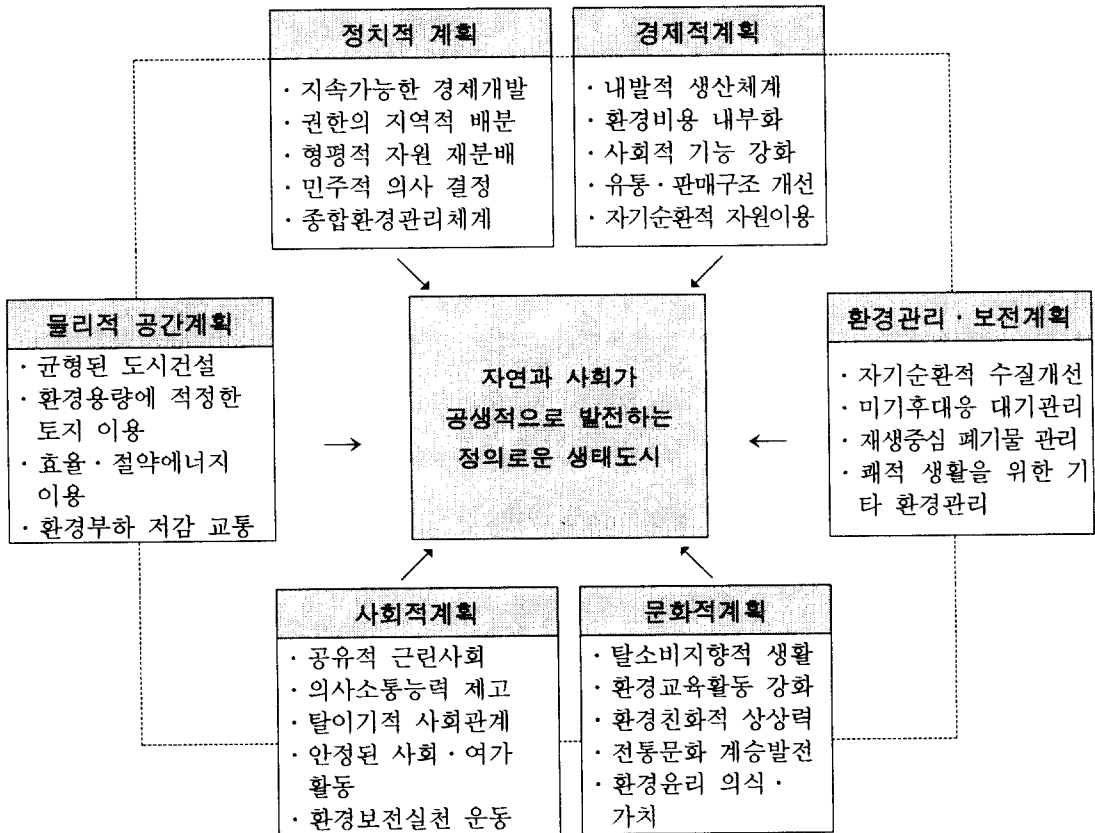
출처: 김선희, 2001: 30-60의 내용을 편집함.

생태도시란 도시의 구조 및 기능이 환경에 대해 배려가 잘 되어 있으며, 시민 개개인의 환경 및 공동체적 자각에 기반을 둔 도시라 할 수 있다. 즉,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은 물론 에너지와 수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가능한 도시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과 상호작용하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구조까지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생태도시 운동이다. 이는 생태계가 갖는 성격이 그대로 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생태계에서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철저하며, 그것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있다(최병환, 2004).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미래성, 자연성, 참여성, 형평성 및 자급성의 5요소(원칙들)를 통합적으로

로 연계하여 추구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은 이해관계자의 동반자 관계에 기초한 협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소 만들기가 되어야 한다(이창우, 2001). 이는 생산 ↔ 생활 및 소비 양식 등이 상호 연관적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생활이 총체적으로 지속가능성에 기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그림 1> 생태도시를 위한 계획 영역들의 상호관계와 주요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리적 공간, 환경관리·보전 등의 모든 측면의 계획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생태도시란 궁극적으로 자기실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 활동들이 생태적 여건에 알맞게 조정되고, 환경



<그림 1> 생태도시를 위한 계획 영역들의 상호관계와 주요 내용

출처 : 한국도시연구소, 2000: 187.

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측면들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참여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게 된다.

### 3. 생태마을 운동

인류의 조상들이 수렵, 목축, 농경 등을 위주로 자연에 의존하는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왔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 생태마을의 기원은 매우 깊다. 그러나 현대 환경위기 시대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반성을 담고 체계적으로 생태마을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199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세계 생태마을 네트워크(The Global Ecovillage Network: GEN)가 1991년부터 구성됨으로써 이에 대한 세계적인 상호 연구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현재 이에 가입되어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약 15,000개 마을이 넘는다(예를 들어 <http://gen.ecovillage.org>에서 살펴보면 스리랑카는 11,000개, 세네갈은 350개 마을이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외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사회(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등)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들이 국내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국내의 경우에 생활협동조합운동 및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농업 운동과 연결된다.

이는 그 동안 식품안전과 일반 시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주체적 삶의 추구활동이 점차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생산 활동, 이웃과의 관계 등 총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마을단위의 실천적 모델들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하게 되었다(김귀순, 2003).

생태마을이란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통합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기능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 탄력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유기체적 마을이다(〈표 4〉 참조). 즉,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의·식·주·교육·문화 활동 등을 실천하고, 이웃·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마을을 의미한다(김귀순, 2003). 생태마을의 이러한 특성을 김성균(2003)은 1) 자연과 공생하는 삶의 원칙 중시, 2) 합의적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 3) 공동체 경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운영, 4) 생명지역주의에 기초한 에너지 및 환경문제 접근, 5) 자율적이며 공동체성을 지향한 마을 운영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삶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되고 이웃과 함께 살아왔던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아 환경문제를 포함한 현대 사회의 병폐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운동의 주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태마을 또는 생태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강화도 장화리 생태마을 계획과 1998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생태마을 계획, 1999년 건천리 생태마을 계획, 2000년 간디 생태마을 계획, 2001년 문당리 백년 계획 등을 만들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을 만드는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김귀순, 2003).

현재 우리나라의 생태마을은 경남 안솔기마을, 전남 무주 진도리, 경남 함양의 청미래마을과 두레마을, 충남 홍성 문당리, 강화군 장화리, 지리산 실상사, 경기도 가평 두밀리 등 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마을들은 자급자족하는 생태적 삶(무주 진도리, 함양 청미래마을), 환경농업(홍성 문당리, 지리산 실상사, 가평 두밀리, 장성 한마음공동체, 양평군 명달리, 화천군 신대리), 대안교육(안솔기마을, 가평군 두밀리), 지역의 자연

<표 4> 지속가능한 농촌 계획모형에 따른 '문당'의 주요 계획 항목

	경제적 지속 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안정성	지속적으로 안정된 경제시스템 확보	농촌사회구조의 안정	안정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고유의 환경친화적 작물 생산을 특화하여 생산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성, 보건성 관리성, 쾌적성을 갖춘 생태적 주거환경의 조성</li> <li>마을 커뮤니티, 공공시설 등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마을 배치 및 공간 구성계획</li> <li>전통성, 장소성을 갖춘 마을 시스템 구성</li> <li>주민 교육체계 및 수준의 안정화</li> <li>귀농인구 유치 및 안정적인 인구 기반조성</li> <li>전문인력과 후계자의 양성 및 유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생태계의 보전</li> <li>하천생태계의 보전</li> <li>농업생태계의 보전</li> </ul>
자립성	지역적 경제 자립	두레 공동체 확립을 통한 사회적 자립기반 구축	자기완결형 생태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성의 극대화</li> <li>고부가가치 다품종 농산물 생산</li> <li>지역적 완전 고용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참여 활성화</li> <li>상부상조의 전통 확립</li> <li>건강 및 의료시설 확충</li> <li>복지 및 사회기반시설 수준의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입에너지의 지역적 자립화</li> <li>산출물, 부산물의 지역내 완전처리</li> </ul>
다양성	생산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사회활동 기반	생태적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농위주의 벤처형 생산기반의 다양성 확보</li> <li>소득원의 다양화</li> <li>농외소득 확보를 통한 탄력적 생산기반 구축</li> <li>도농교류, 생산물 거래 방법의 다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교육체계 마련</li> <li>마을의 관광자원화 및 환경해설 체계를 통한 녹색 관광기반 구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기회 제공</li> <li>문화, 여가 활동의 다양화</li> <li>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사회활동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생태계 유지를 통한 영속, 안정성, 회복력의 극대화</li> <li>생물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보전, 복원, 창조</li> </ul>
순환성	경제적 순환 활성화	사회적 교류 강화	자원재활용 및 물질순환체계 확립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발전을 위한 재투자 및 경제순환 활성화 조성(마을 경제발전을 위한 조직체 확립, 마을기금의 마련, 공동시설 및 생산시설 등의 재투자 기반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교육, 녹색관광을 통한 도·농간 교류기회 극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오염 및 훼손의 최소화</li> <li>수자원 순환 체계의 확립</li> <li>폐기물 순환 및 자원 재활용</li> <li>친환경적 에너지 활용</li> </ul>

출처 : 김귀순, 2003: 31-32.

을 지키면서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생태 관광(강화도 장화리) 등 마을마다 제각기 개성을 가진 생태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김귀순, 2003).

## V. 결 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활동의 대표적인 예는 생태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으로 구현(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환경에서 사람들이 보다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바람직한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핵심구성원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생태도시와 마을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과 생활양식은 한 사회(마을)의 가치관과 관련되는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 전환과 관련하여 Milbrath(2001)는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회적 학습은 서로 배우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통합적이고 확률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과학과 기술에 비판적이며, 이론과 실천을 조화하고,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의식적으로 예상하며, 미래의 영향을 분석하는 실천을 제도화하고, 개방성과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태도시에 적합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많은 부분 상호 이해, 형평성, 개방성, 민주성과 책임성 등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며 민주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도시와 마을에 적합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생태도시와 마을에 적합한 공감대와 생활양식 - 이는 생태도시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일치성과 허용성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인데 -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환경교육이 기여하게 된다.

환경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전인적 성장과 환경소양을 갖춘(바람직한 환경의사 결정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시행체제에 있어서는 사회의 전 구성원이 다 같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적 체제를 강조한다. 가정, 학교, 사회 생활, 생산-소비-재순환 활동 등에 있어서 사회의 각 구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친환경적인 방법들을 학습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하며, 환경친화적인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학습이나 환경교육이 중시되는 분위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지나친 경쟁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결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신(2003)은 이 세계, 이 삶이 정말 개인 단위로 정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에서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가 진정하게 각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구성원이 공동체의 삶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담당하며,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과 완성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과소비적 생활양식과 환경오염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삶이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인지 지속적이며 심도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즉, 기본적으로 풍족한 삶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는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 운동에서와 같이 생태계와 괴리되지 않도록 삶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사회의 생활양식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세계환경발전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에 따르면 국가의 발전수준 및 경제체제를 불문하고,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개념과 그 실천을 위한 전략적 틀에 관한 공동된 합의를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김종순 편, 2002). 즉,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목적이 Durning (2001)의 '평생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가 물질적 풍요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의 지향점은 인간과 인간간의 형평성, 인간과 자연과의 균형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삶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함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갖춰나가기 위한 첫 걸음은 환경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종합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 시각의 한 가지 문제점은 인간과 인간간 및 인간과 자연간의 형평성 있는 해결 대안을 모색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균형적 시각이다. 이는 정책 및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참여에 의한 정보의 공개성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양식이라는 공감대를 갖고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균형적 시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쟁점과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려는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VI. 참고 문헌

1. 김귀순, 2003, 세계의 생태마을을 찾아서, 서울: 누리예: 5-20.

2. 김선희, 200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전략," 생태도시로 가는 길, 서울: 도요새.  
 3. 김성균, 2003, "생태마을의 이론과 실천," 지역사회개발연구, 28(1): 107-121.  
 4. 김종순 편, 2002,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5. 박영신, 교수신문, 2003. 3. 10.일자 5면.  
 6. 앨런 테인 더닝(A. T. Durning), 2001, 소비사회의 극복, 서울: 도서출판 뜨넌.  
 7. 양중희,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과 발전,"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서울: 박영사: 75-119.  
 8. 요시다 타로, 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서울: 들녘.  
 9. 이규인, 2002a, 유럽의 환경친화주택, 서울: 발언.  
 10. 이규인, 2002b, 일본의 환경친화주택, 서울: 발언.  
 11. 이창우, 2001,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도시," 생태도시로 가는 길, 서울: 도요새.  
 12. 레스터 밀브래스(L. W. Milbrath), 2001, 지속가능한 사회, 서울: 인간사랑.  
 13. 장욱, 1998, "지속가능성에의 두 가지 접근 방법: 생태적 효율성과 생태적 효과성," 환경정책, 6(2):  
 14. 조진상, 2001, 유럽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서울: 월산.  
 15. 최병두, 2003, 도시 속의 환경 열두 달-가을·겨울, 서울: 한울.  
 16. 최병환, 2004, "생태도시의 철학적 고찰," 미래도시와 환경, 서울: 다운샘: 117-151.  
 17. 한국도시연구소, 2000, 생태도시론, 서울: 박영사.

Ecovillage Network(<http://gen.ecovillage.org>)  
 (2004년 5월 19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